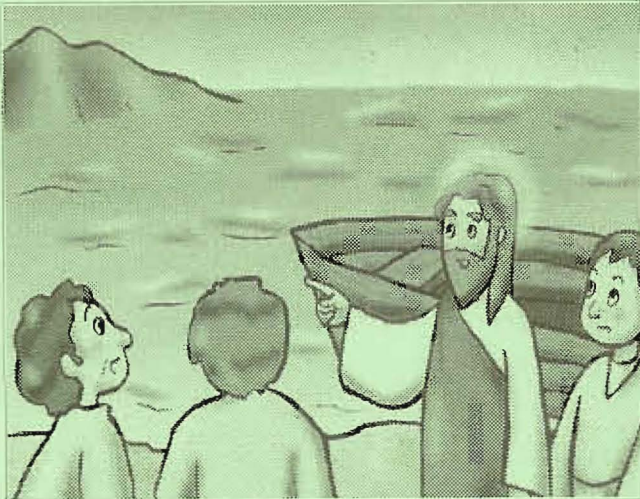


백삼위 한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연중 제16주일
제32권 34호(나해) 2012.7.22

[묵상]



"너희는 외딴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마르코 6,31>

예수님의 명을 받들어 떠났던 사도들
그간의 일들을 예수님께 보고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 회개했던 이들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기쁨의 순간들,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
그 증거로 발밑의 먼지를 털고
발길을 돌려야 했던 좌절의 순간들.

이야기꽃을 피우던 예수님과 제자들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오붓하게 식사할 수조차 없기에
그들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외딴곳으로 떠나길 원하시지만
사람들은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외딴곳까지
먼저 달려가 기다리고 있는 이들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 증거로
발밑의 먼지를 뒤집어 쓴 이들
그들이 받을 대접은 완전히 다릅니다.
외면한 이에게는 건디기 힘든 심판이,
어디에서든 예수님을 찾는 이에게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이 주어집니다.
찾아 나선 이들 외면하지 않고 돌보시는
착한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桓-

martinlee0501@hanmail.net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강제시 연락처) : (310)720-8240

미사

수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미사 학생미사(영어) 낮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면담의 날(신부님, 수녀님) 성경공부(그룹반)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목요일	성시간(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병자영성체(1째주) 성령기도회 울트레아(4째주)	저녁미사후 오전 10:00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그룹반) M.E. Sharing(3째주)	오전 9:30 오후 7:00
토요일	유아세레(작수달 4째토요일) 레지오 마리아 배론 청년모임	오후 6:00 오후 5:30 오후 6:00
주일	병자 영성체 /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안나회/양업회, 성모회 자모회/대건회/원서회 • 꾸리아 3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 • 제대회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45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이장환 마르띠노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문 밍티스타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연) 권순봉 요안나, 홍장희
특전미사	(생) 안재만 다니엘, 홍숙자 막달레나
주 일	(연) 이정용 야고보, 김풍길 바오로, 박영춘 안토니오, 이준택, 고준희 제임스, 양 세룬다, 김인숙 마리아, 오진 베드로, 김중환 야고보, 송공량 카타리나
낮 미사	(생) 김은 안나, 신대철 알베르토, 김춘자 막달레나, 유재형 요셉, 정진학 알베르토, 정제니, 박완철 다니엘, 사도들의 모후 pr. 가정, 송정현 율리아나, 이석진 가브리엘, PV구역가정, 문 밍티스타 수녀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예레미아서(Jsremiah) 23,1-6

화답송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주 님 은 나 의 목 자. 아 쉬 울 것 없 어 라.

○주님은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푸른 풀밭에 나를 쉬게 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이끄시어, 내 영혼에 생기 돋우어 주시네.○

○당신 이름 위하여 나를 바른길로 이끌어 주시네.

어둠의 골짜기를 간다 하여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두려울 것 없나이다. 당신의 막대와 지팡이

저에게 위안이 되나이다.○

○원수들 보는 앞에서, 제게 상을 차려 주시고,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하옵시다.○

○제 한평생 모든 날에, 은총과 자애만이 따르리니,

저는 오래 오래 주님 집에 사오리다.○

제 2독서 에페소서(Ephesians) 2,13-18

복 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복 음 마르코(Mark) 6,30-34

영성제송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특전)	아침 미사	낮 미사
미사곡			33-42
입당	220	228	182
봉헌	270	270	269
성체	282	287	291
파견	241	246	232

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 하느님의 말씀에 관하여 -

▶제1부 하느님의 말씀

“한처음에 말씀이 계시었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시었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요한 1,1.14)

교회 안의 성경 해석학

성경과 교회 일치

46). 교회가 강생하신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 기초
하고 있음을 생각하면서, 세계 주교 대의원 회의는 그리스도
를 믿는 모든 신자들의 일치체를 충만하게 표현해 내기 위한 교
회 일치적 대화에서 성경 연구가 차지하는 중심적인 역할을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성경 자체 안에는, 세상이 믿도록 당
신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청하시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드
리신 감동적인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요한 17,21 참조).

이 모든 것은, 성경을 함께 듣고 묵상하는 것이 비록 아직 완
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친교를 살게 해 주리라는
우리의 확신을 굳세게 해 줍니다. “함께 성경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사랑의 대화로 이끌고 또한 진리의 대화에서 자라날 수
있게 합니다.”

함께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 성경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를 실천하는 것, 낱아짐도 다함도 없는 하느님 말씀의
새로움에 놀라는 것, 우리의 의견이나 선입견에 맞지 않는 말
들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귀뚫을 극복하는 것, 그리고 모든
시대의 신자들과 친교 속에서 듣고 공부하는 것, 이 모두는 말
씀을 듣는 데에 대한 응답으로 신앙의 일치에 이르기 위하여
가야 할 길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말들은 참으로 분명했습니다. “거룩한
말씀은 바로 (교회 일치) 대화 자체에서 하느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 있는 탁월한 도구가 되어, 구세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제
시하시는 저 일치를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규범들
과 상이한 전통들을 존중하면서 하느님 말씀에 대한 교회 일
치적인 연구, 논의, 그리고 예식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입니다.

이러한 예식은 일치 운동에 유익하며, 그 참된 의미를 살아 낼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우리 모두가 같은 식탁에 모여 단
하나의 잔에서 마실 수 있을 날을,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날
을 앞당겨 주시기를 청하는 진정한 기도의 강렬한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회들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고 칭송
할 만한 일이지만, 신자들에게 이것이 주일과 의무 축일의 미
사 참례를 대체하는 것으로는 제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
니다.

이 연구와 기도의 활동에서 우리는 교회를 유권 해석의 주체
로 보는 이해나 교도권의 결정적 역할과 같이 아직 더 깊이 다
투어야 할 측면들과 서로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
을 평온하게 인정합니다. <◆계속>

휴식이 필요한 이유

초등학교 시절 방학이 되면 외할머니댁에 놀러 가곤 했습니다. 그곳에서 물놀이도 하고, 흙장난도 하며 재밌게 놀았습니다. 처음에 동네 아이들은 하얀 얼굴에 흰 고무신을 신은 서울 아이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만 지나면 나를 강으로 들로 데리고 다니며 서슴없이 해주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점심을 먹고 나른해지면 초가집 대청마루에서 할머니 무릎에 누워 때마침 소리를 벗 삼아 낮잠을 잤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할머니가 내 머리카락을 쓰다듬어주시면 난 이내 꿈나라로 직행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고 그때를 생각하면, 할머니의 부드러운 손길과 함께 시원한 바람이 이마를 스치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현대인은 하루만이라도 아무런 간섭 없이 쉬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참으로 공감 가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요즘 너무 바빠서 심지어 죽을 시간(?)도 없다는 뼈있는 농담을 하곤 합니다.

휴식(休息)이란 한자를 보면 휴(休)는 사람(人)이 나무(木)에 기대 앉아 있는 모양이고, 식(息)은 자신(自)의 마음(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휴식이란 나무에 기대어 앉아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과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영국의 위대한 수상이었던 처칠은 낮잠을 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내 활동의 힘의 원천은 낮잠입니다. 낮잠을 자지 않으면 뭔가 부자연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처럼 꼭 낮잠을 자란 말은 아닙니다. 휴식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한 말입니다.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은 “파로 외판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하고 말씀하십니다. ‘외판곳’이란 사람들과 일을 잠시 잊고 떠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밀려드는 인파에 많이 지쳤던 것입니다. 휴식은 잠시 노동을 그치고 몸

과 마음을 쉬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휴식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찾게해 주는 것입니다. ‘외판곳’은 바로 외적인 고요와 침잠의 장소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자신과 만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과 만남에 인식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과 대화를 하고 잘 돌보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가던 길을 멈추어 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추는 것은 결코 뒤처지거나 후퇴하는 것이 아닙니다. 멈출 줄 아는 것은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지혜를 바탕으로 살아간다면 피곤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과 주위를 진정으로 돌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파로 외판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마르 6,31)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휴식은 바로 주님과 함께 할 때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잘 알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내 주변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본다면 많은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허브 분 하나를 선물 받았었는데 자꾸 마르더
꽃 군요. 자주 물을 준 탓인것도 같았지만 말라
가는 것을 보며 물을 주지 않을 수도 없었습니다.
앞이 다 떨어진 날, 허브 옆에 가늘게 돋은 잡초를 발
견했습니다.

언젠가부터 잡초 크는 재미로 분을 자주 들여다보곤하
는데 잡초도 마음에 두면 화초인지 바라볼 때마다 애
뜻합니다.

◆이영 아녜스 / 수필가

이번주 전례봉사가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이호미 엘리사벳	정미영 미카엘라
제1독서자	김태형 가브리엘	박진수 스테파노	이상철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이은지 수산나	박혜경 레나타	이희경 크리스티나
제물봉헌자			토런스 서 3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임정빈 보스코	남성철 베네딕도	이진향 아녜스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김교복 레오	모은기 다 두
제2독서자	김은지 릴리안	서용숙 에스텔	정명모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동 1반

- ◆ 교부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일본군 위안부문제 사과 촉구 결의안(미연방하원案 HR121) 통과 5주년 기념행사에 초대합니다.

- 기림비설립(LA) 모금 및 위안부 생존자와의 만남
 - * 일시 : 7월30일(월) 오후 6시30분
 - * 장소 : 글렌데일 센트럴 라이브러리 오디오리엄
(222 E. Havard St. Glendale, CA 91205)
 - * 참석자 : 생존자 김복동 할머니, 윤미향 정대협 대표,
글렌데일 시의회의원 등
 - * 모금 및 광고후원 문의 : 가주한미포럼 김성희 간사
☎(213)545-1905
- 작품전시회 "할머니들의 눈물, 할머니들의 함성"
 - * 일시 : 7월23일(월)~28일(토) LA 한인타운내
갤러리 웨스턴(210 N. Western Av.)
글렌데일 센트럴 라이브러리(7/23~8/3)
 - * 초청화백 Steve Cavello, 사진저널리스트 김영희씨,
위안부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 등이 전시됩니다.

◆ 울뜨레아 7월 정기모임

- 일시 : 7월26일(목) 저녁미사 후
- 장소 : 강당
- 문의 : 이명순 크리스티나 ☎(310)749-0276

◆ 2012년 제25회 남가주 성령쇄신대회

- 주제 :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 일시 : 7월27일(금)~29일(주일)
- 장소 : 엘카미노 칼리지 강당(16007 Crenshaw Bl.)
- 강사 : 김세을 신부, 백운철 신부, 정현철 신부,
조영희 신부, 한상만 신부
- 참가티켓 : \$25(본당 사무실에서 구입시 \$20)
- 문의 : ☎(213)435-7570
- 주관 : 남가주성령쇄신봉사회(봉사회 회장 김충섭 마틴)
- 후원 : 남가주사제협, 남가주평신도협
가톨릭신문, 평화신문

◆ 예비자 교리반 개설 및 신자 재교육

주변에 아직 하느님을 모르는 이웃들과, 알고 싶어도 기회가 없어서 머뭇거리는 분들에게 주님을 소개하여, 주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 우리 백삼위 공동체의 일원이 되도록 초대합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은 교우들도 재교육 차원에서 예비자들과 함께 교리를 수강할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환영식 : 2012년 9월2일(주일) 낮미사 후, 강당
- 교리기간 : 2012년 9월~2013년 3월
- 세례식 예정 : 2013년 부활절
- 교리지도 : 이장환 마르띠노 본당 신부님
- 문의 : 복음화분과장 이영석 크리스토퍼 ☎(310)796-6960

◆ 새 사목회 상임위원 단합대회

- 일시 : 7월29일(주일) 오후 7시
- 해당되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바랍니다.
- 문의 : 이남현 타시모 총무 ☎(213)272-3598

◆ 부산교구 사제협 연수 본당 신부님 참석

- 일시 : 7월30일(월)~8월3일(금)
- 연수지역 : 시카고
- 이 기간중 수요일(8월1일) 저녁미사는 없습니다.
목/금요일 미사는 노성기 신부님(광주가톨릭대 총장)께서
집전해주십니다.

◆ 배론 청년회 7월 스케줄

- 청년회원 모집 : 20~30대 미혼 남·여
- 성경공부(창세기) : 7월3일부터 12주간
 - *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 * 장소 : 1층 회의실
- 불령시합 및 저녁식사 :
21일(토) 특전미사후 신부님과 함께
- 기도회 : 28일 특전미사 후 성체조배실
 - * 문의 : 최태훈 아오스딩 청년회장 ☎(310)508-2123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7월22일(주일) : 토런스 동 2반(비빔밥 \$3)
- 7월29일(주일) : 토런스 서2반(해물카레 \$3)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부금	장미순	금영도	김광자	김영길	김현숙	남성철
	문충한	박봉성	박상준	박정자	송재훈	송준규
	안재만	안태갑	양영관	오세원	오수인	원건희
	이근태	이민상	이영희	이우성	이재승	정병훈
	조준제	주영석	최기호	최의수	최현찬	한혁수
	합계 : \$2,750					
미사헌금 : \$2,676						
성전헌금	장미순	금영도	김광자	김영길	김현숙	남성철
	문충한	박봉성	안재만	안태갑	양영관	오세원
	오수인	원건희	이근태	이민상	이영희	이우성
	조준제	최기호	최의수	최현찬	한혁수	
	합계 : \$1,389					
한남제인도네이션 : \$340						

~ 주일학교/한국학교 소식 ~

◆ 주일학교 독서자 모임 및 연습

- 일시 : 오늘 주일(22일) 낮11시 미사후 성전
- 대상 : 주일학교 모든 독서자 학생(전원참석 요망)
- 문의 : 이진원 루시아 전례담당교사 ☎(310)780-8895

◆ 주일학교 고등부 신앙대회(샌디에고 스텐벤빌)

- 일시 : 7월27일~ 29일(금토일)
- 집합시간 : 7월27일(금) 오전 11시30분까지 성당파킹랏
- 출발 : 정오(12시 정시출발)
- 문의 : 김낙기 바오로 행사 리더 ☎(310)709-3343

◆ 주일학교 복사단 회합

- 일시 : 8월4(토) 오후 4시 성전
- 대상 : 신·구 복사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참석 바랍니다
- 문의 : 본당 수녀님, 황선홍 그레고리오☎(424)903-6637

◆ 한국학교 2012/2013학년도 등록

- 등록시간 : 주일학생미사 -11시미사 전후
 - * 등록금 : 첫째 \$160, 둘째 \$150, 셋째 \$140, 넷째 무료
 - * 대상 K~12학년, SAT II
- 여름방학 SAT 한국어 특별반 모집
 - * ① SAT 기초 준비반 ② SAT 집중문제 풀이반
 - * 수업시간 : 주일 학생미사후(등록금: 새학기등록자 무료)
- 교사 모집 : 대상 - 보조교사
 - *문의 : 김화경 스텔라 한국학교교장 ☎(310)464-7490

◆ 백삼위 서예반 회원 모집

- 서예에 관심있는 분, 또한 붓을 잡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분들을 초대합니다.
- 시간 : 매월 둘째, 넷째 주일 오후 1시30분~3시30분
 - 지도 : 한국예총미주서예가협회 회장 박태홍(일호)
 - 문의 : 이명렬 라파엘 ☎(310)749-0278

남가주 소식

◆ '청실 홍실' 만남의 장

- 일시 : 8월12일(주일) 오후 5시
- 장소 : LA 옥스포드 호텔
- 주관 : 남가주한인종신부제협의회(김재동 요한 부제)
- 신청 및 문의 : 정시문 사무국장 ☎(714)530-3111

◆ 성 이나시오 19번 영신수련 피정자 모집

- 일상의 기도와 묵상을 통해 하느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삶으로의 초대.
- 기간 : 2012년 9월~2013년 6월
 - 회비 : \$700(도네이션으로 봉헌됩니다.)
 - 주관 : 로올라 영성센터(오렌지카운티)
 - 문의 : 전아네스 ☎(213)507-1144

소공동체 부 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 장 박은혜 클라우디아 김명재 아가다
차 장 이희경 크리스티나 김희연 루시아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1	이순자 비비안나 213-675-0498	김옥찬 수산나 562-628-1955 7/14(토) 오후 7시
	2	김찬구 요한 701-6343	야외반모임(Torrance Park) 7/21(토) 오후 5시
	3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문지숙 엘리사벳 854-9407 7/18(수) 오후 8시 성당
토런스 서 장정진 베로니카 713-7783	1	이진향 아네스 989-0366	김교복 레오 328-1827 7/14(토) 오후 6시
	2	유선영 클라라 424-241-5988	이형삼 요셉 375-7397 7/14(토) 오후 6시 차이나부페
	3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신경희 클라라 424-903-5051 7/22(주일) 낮미사후 성당
토런스 남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1	오창애 안나 974-2857	최기남 야고보 378-4183 7/17(화) 오후 7시 반미사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박미경 스테파니아 634-6923 7/19(목) 오후 8시30분 성당
	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전하현 마리아 213-550-6653 7/14(토) 오후 6시 성당
토런스 북 최미열 클라라 895-8624	1	조화숙 안젤라 213-272-8393	야유희(P.V. Park) 7/15(주일) 오전 10시30분
	2	1반과 같음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이정자 아그네스 784-0585	1/2 주영애 켈마 818-640-3656	김금자 데레사 800-3939 7/14(토) 오후 7시 성당
P. V. 김명재 아가다 866-8778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	남정희 베네딕타 384-3289	P.V. 구역 합동 반모임 7/14(토) 오전 10시 라이언파크
	2	금유미 크레센시아 482-9108	P.V. 구역 합동 반모임
	3	박은혜 클라우디아 377-7063	P.V. 구역 합동 반모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P.V. 구역 합동 반모임

이번 주 단체 모임

새희기 첫 사목회	오후 1시
-----------	-------

다음주 단체모임

--	--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

최근 러시아의 시베리아 콜리마 강둑에서 다람쥐 굴이 발견되었습니다. 원래는 표토층인데, 빙하기 때문에 40m의 얼음두께로 덮여 있던 툰드라 지역이었습니다.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면 훗날을 대비해서 저장해 두는 습성이 있으므로 70여 개의 다람쥐 굴에서는 씨앗과 열매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방사선 연대측정 결과 이 식물은 3만 2천 년 전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부분 기온이 영하에 머무는 천연 냉장고의 지역이어서 다행히 씨앗들은 썩지 않고 생명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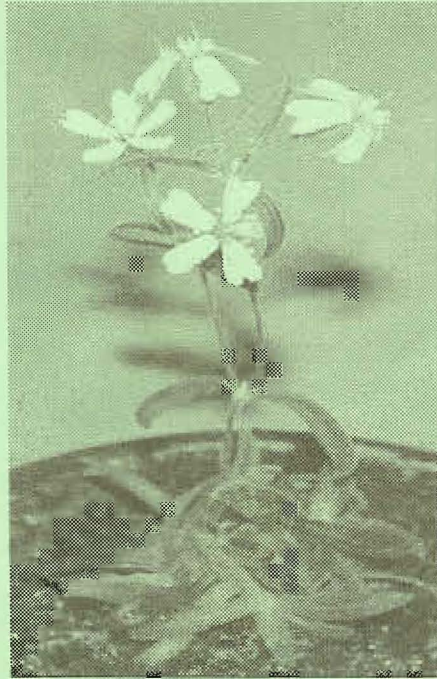
세포생물 과학자들은 수차례의 실패 끝에 씨방 속 태좌(胎座) 세포를 채취한 뒤 배양액에서 이 조직을 증식시켜 싹을 틔운 다음 일반토양에 옮겨 심어 꽃을 피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피어난 이 아름다운 꽃은 모두 네 송이. 꽃 이름은 패랭이꽃과의 일종인 '실레네 스테노필라'입니다. 보십시오. 이 꽃이 바로 3만 2천 년 만에 피어난 꽃입니다.(사진참조)

1974년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하다르 사막에서 '루시(Lucy)'가 발견됨으로써 하느님이 인류를 창조한 시기를 3백 50만 년 전으로 추산하는 것이 고고학적 정설이지만 인류 최초의 문명이 탄생된 시기는 기원전 3천 5백 년 전으로 3만 2천 년 만에 피어난 '스테노필라'보다 훨씬 짧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단군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이 꽃에 비하면 한순간이고,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고 가나안으로 떠난 것도 찰나입니다. 구약성경에 기초하여 천지창조의 시기를 수많은 성서학자들은 최대 기원전 5천 년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니 '스테노필라'야말로 천지창조 이후에 처음으로 핀 처녀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이 꽃의 눈으로 보면 바로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재진행형일 따름이며, 우리들의 짧은 인생은 존재하지도 않는 일존광음(一寸光陰)에 지나지 않습니다.



3만 2천 년 만에 피어난 '스테노필라'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신비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역사와 문명 따위는 저 한 송이의 꽃에 비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환상일 뿐입니다.

저 꽃은 천지창조 이전부터 '사람'을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보여주신 영광입니다. 씨앗은 다람쥐에 의해서 굴속에 파묻힌 이래로 3만2천년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꽃피게 될 것임을 굳게 믿고 기다려 왔습니다. 그동안 대륙이 무너지고 얼음이 얼고, 바다와 땅이 갈라지고, 홍수가 온 땅을 덮어도 씨앗은 기다린다는 생각 없이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대와 나 우리 모두는

부모들이 태어나기 전의 '한 처음'으로부터 온 '사람'의 씨앗이며, 하늘과 땅이 갈라지기 전의 창세기로부터 온 '사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아버지'를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요한 17,3)면 우리들은 모두 영원한 생명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3만 2천 년 만에 피어난 '스테노필라'에 비하면 '주님이 오실 날도 이미 가까워져 주님은 문 앞에서 계시' 것입니다.(야고 5,8-9 참조)

그렇게 보면 기다리는 것은 씨앗인 우리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아들을 멀리서 본 아버지(루카 15,20)' 하느님이시며,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꽃신을 신겨 주심'으로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참사람(眞人)'의 꽃으로 눈부시게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오면 죽은 이들이 하느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때이다.(요한 5,25)"

- 성경 인용은 공동번역 성서입니다.-

◆최인호 베드로 / 작가<서울대교구 주보자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준다는 행위는 타인을 위로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 피에르 쌍소 -